

# 달성군 재가노인돌봄협의체 종사자 체육대회 개최

달성군 재가노인돌봄협의체 종사자 체육대회가 지난달 27일(금)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최용우 달성군 재가 노인돌봄협의체 회장 등 관계자 및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퍼포먼스에서는 '5,200명 어르신 기본권 박탈 NO', '69명 종사자 생존권 박탈 NO'라는 구호가 담긴 플래카드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 계획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두 서비스를 유사·중복 사업으로 규정하고, 일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사회복지사업회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계획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김은영 군의장은 "달성군의 노인복지 발전은 모두가 종사자들의 헌신 덕분이다."고 말했다. 최용우 협의체 회장도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과 감동적인 순간들이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고 언급하며, 보람 있는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달성군재가노인돌봄센터는

효경, 수경, 에덴, 늘푸른 4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백 명의 돌봄 종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준업 객원기자

## 차량번호판 영치? 문자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달성군(군수 최재훈)이 지난 달 25일(수) 대구시 최초로 차량 번호판 영치 상황을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차주가 체납세를 빠르게 납부해 번호판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달성군은 절차상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 작업 시 차량에 표시된 운행자의 최신 연락처로 즉시 영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원활한 영업 및 일상 활동을 위해 체납세를 제때 납부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담당 직원과 소통하며 체납 이유, 납부 방법 등을 빠르게 문의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편

한 감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후 달성군의 영치차량 당일 현금 징수율은 시행 전 대비 70~80%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영치 작업이 완료되기 전 밀린 자동차세를 납부할 시 번호판을 원상태로 다시 부착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번호판을 찾기 위해 군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



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안전관리위원장' 수상

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달 24일(화) 오송 식생활안전관리원에서 열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어린이 다국적 신메뉴 개발 공모전'에서 식생활안전관리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초 아시아 영화 중심

# AsiaM

추억의 홍콩 클래식 명작부터 트렌디한 신작까지  
다채롭게 편성하는 뉴트로 채널

푸른방송 110번 KT 90번 SKB 80번 LGU+ 55번